



인보험 회복세 부진, 손해보험 상승세 둔화

이소양 연구원

■ 10월 23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~9월 중국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7.3% 증가한 1조 2,076억 위안이며, 이 중 인보험 및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각각 8,084억 위안과 3,992억 위안이라고 발표함.

-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3.9% 증가했지만, 2010년 1월~9월의 보험료 수준을 감안하면 회복세가 부진한 것으로 보임.
 - 2010년 1월~9월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8,369억 위안이었으며, 2011년 1월~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7.1% 감소한 7,779억 위안을 기록함.
 - 생명보험 개인대리점 종업원 감소, 방카슈랑스 판매채널 위축 및 주식불황에 따른 투자연동형 생명보험 판매실적 악화가 인보험 부진의 원인임.
-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.9% 증가했는데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7.6% 증가율에 비해 상승세는 둔화된 것으로 보임.
 - 자동차구매자격 규제정책에 따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상승세 둔화 및 중국경제 하강 속에서 기업재산보험 및 화물운송보험 등의 부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.
- 한편, 올해 9월까지 중국 보험산업 자산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0.5% 증가한 6조 8,999억 위안임.

■ 또한, 1~9월 생명보험시장에 상위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혼조세로 나타나며, 손해보험시장에 상위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상승세가 모두 크게 둔화됨.

- 생명보험시장 상위 3사인 중국인수생명, 평안생명, 태평양생명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2,613억 위안, 1,008억 위안, 749억 위안이나 증가율로는 중국인수생명이 0.4% 감소하였고 평안생명 7.4%, 태평양생명 0.5% 증가하였음.
- 손해보험시장에 상위3사인 인민재산, 평안재산 및 태평양재산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1,471억 위안, 739억 위안, 51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.9%, 20.0%, 11.1% 증가했지만, 전년동기에 비해 1.1%p, 15.5%p, 8.4%p 하락함.

- 한편, 1~9월 외자계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각각 340억 위안, 51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로 4.29%와 1.22%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각각 0.54%p, 0.14%p 상승하였음.

(인민망, 10/22, 신량망, 10/23, 하쉬망, 10/23 등)